

# 鷄首壺 小考



## A Study of a Jar with Chicken Head

김 일 규  
부산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육조 계수호의 출현과 전개

### III. 계수호의 용도

### IV. 맺음말

## 국문 요약

계수호는 삼국시대 동오에서 출현하여 육조 전체시기와 수대까지 유행한 육조자기를 대표하는 기종이다. 계수호의 출현 시점은 서진-동진 교체기라는 기준의 견해와 달리 동오 중기까지 소급되었다. 그 출현 배경은 닭을 승상하던 고대 중국의 관념 및 당시 유행한 청담 사조로 인해 飲酒와 飲茶 문화에서도 미적 우아함을 추구하고자 한 시대상이 도자 문화에 반영된 것이다. 계수호는 동한 아래의 전통적인 요소와 외래의 간디라양식 요소가 융합되어 출현한 새로운 기종이다. 계수호는 일상용기인 酒具와 茶具의 주전자로 사용되었는데, 남북조시대 중기 이후 대형화되고 주전자로서의 용도가 되하였다. 특히 북조의 계수호는 대형화되고 양각의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하여 일상용기보다는 장식품으로 사용되다가 주인 사후에 무덤에 부장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주제어 : 계수호, 동오, 육조자기, 전통, 간디라 양식, 일상용기, 장식품

## I . 머리말

중국 육조의 東吳에서 壺 기종의 동체 견부에 닭, 양, 호랑이, 독수리 등 禽獸의 머리를 부착한 속성을 가진 기형이 출현하였다. 이 중 닭 머리인 鷄首를 부착한 것을 鷄首壺라 통칭한다. 계수호는 六朝瓷器를 대표하는 한 기종으로 六朝의 전체시기는 물론 北朝와 隋代까지 성행하였으며, 初唐을 거치면서 쇠퇴하였다.

계수호는 세부적으로는 罐[직구 단경호]와 盤口壺 견부에 닭 머리[鷄首]와 꼽지[鷄尾]를 대칭되게 부착한 기형 및 경부가 세장한 瓶形의 반구호에 동체 기벽까지 관통하는 종향으로 구멍을 낸 계수를 부착하여 注口[出水口]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반대쪽에는 구연과 견부를 잇는 곡선상 손잡이를 배치한 기형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前者가 계수호의 초현 형태이며 주로 서진대에 유행하였고, 서진 말~동진 초에 後者의 주전자 기종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中國硅酸鹽學會 主編 2006: 159; 김일규 2015: 20~25; 임혜빈 2020).<sup>1)</sup> 계수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일상용기로서 酒器 내지는 茶器, 그리고 부장용 明器라는 각각의 견해가 있다(涂師平 2009).

근래 중국에서 발굴 보고된 육조 무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삼국시대 동오와 서진 말 이전으로 편년하는 무덤에서도 후자의 계수호가 출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글에서는 이 고고 자료들을 포함하여 계수호와 관련된 신자료를 검토하여 계수호 출현의 시점과 계보, 배경 및 전개와 변천 양상, 그리고 그에 따른 변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II . 육조 계수호의 출현과 전개

### 1. 계수호 출현의 기준 인식

주전자[注器]인 계수호의 출현 시점과 관련한 기준 인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진-동진 교체기로 편년하고 있다. 즉, 서진 말 이전의 계수호는 [그림 1-3~6], [그림 7]과 같이 소형 반구호와 관 기종을 위주로 하여 동체 견부에 닭의 머리와 꼽지

1) 계수호를 비롯한 육조자기의 형식변천에 관한 제 연구는 김일규(2015)와 임혜빈(2020)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두 글은 계수호의 분류에서 세부적 차이가 일부 확인되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림 1] 계수호와 계수관

를 대칭되게 부착한 형태가 대부분을 점한다. 아울러 계수호는 대부분 소형이고, 계수는 동체를 관통하는 구멍이 없이 막혀있어 주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용성이 없는 장식기 내지는 무덤 부장용 명기로 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涂师平 2009).

서진-동진 교체기가 되면 기형은 병과 유사할 정도로 가늘고 긴 東腰狀 頸部에 손잡이가 더해지고 용량도 좀 더 커진다. 계수는 목이 더해져 길어지고 더불어 부리에서부터 부착한 동체 기벽까지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출수공을 내는 동시에 꽁지 대신 동체와 구연부를 잇는 弧形 손잡이를 부착하는 등 기능성을 부가한 일상용기로 바뀌었다고 한다(王俊 主編 2006: 101).

이처럼 계수호는 서진-동진 교체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비실용적이고 장식성이 강한 속성인 것에 반해 이후에는 용량이 커지고 주구와 손잡이가 달린 실용적 注器인 주전자로 변화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반구호에서 손잡이와 계수형 주구가 부착된 주전자 기종이 파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浙江省 寧波市 余姚 太康八年 西晉墓(王蓮瑛 1995)에서 단경의 반구호에 출수구가 없는 [그림 1-3]의 계수호가 출토되었고, 南京市 板郊鎮 石闡湖 “永寧二年(302)” 기년묘에서 출토된 [그림 13-3]의 鷺首壺 역시 출수구와 손잡이가 없다. 그리고 南京市 象坊村 東晉墓M1인 “太興二年(319)” 기년묘(江蘇省文物管理委員會 1966)에서도 여전히 출수구와 손잡이가 없는 계수호가 출토된 것 등을 상기 원인의 근거로 한다(孙媛 2015). 더불어 기년이 명확한 322년에 조영한 王廩의 무덤으로 알려진 南

京 象山M7(南京市博物館 1972)과 341년에 조영된 浙江省 溫州市 雙“咸康七年”墓(浙江省博物館 編 2000: 99)에서 출토된 [그림 8-8]의 계수호가 출수구와 손잡이가 있는 기형인 것 또한 주요 요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서진-동진 교체기에 주구로서의 계수호가 출현하였다는 직접적인 요인은 결국 조영된 기년이 명확한 서진 말 이전 무덤에서는 손잡이와 출수구의 계수 속성을 가진 계수호가 출토된 예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년 자료의 출토 사례가 많아 고고학적 형식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중국 고고학의 특수성도 일정 작용하였다.

## 2. 출현 시점과 배경

### 1) 출현 시점

湖北省 鄂州市에서 발굴조사 보고된 鄂城 六朝墓(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6: 170~173)에서 출토된 계수호 중에는 동진대의 계수호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한 기형이 확인되는데, [그림 2-1]의 鄂城 六朝墓M2079 계수호가 대표적이다. 湖北省 鄂주는 손권이 229년 남경의 建業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동오의 도읍이었으며, 건업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西都의 역할을 한 곳이다. 이처럼 악주는 남경과 함께 동오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으므로 당시의 최신문물이 곧바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수호와 같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신문물이 이 지역에서 출현하였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림 2-1]의 청자 계수호는 구형에 가까운 동체부, 경 기부와 견부의 미세한 단, 횡공의 반고리형 兩耳, 壺보다 瓶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 정도로 세장한 속요상 경부, 반구에 외반하는 짧은 수평구연, 弧狀 손잡이, 긴 목이 붙은 크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계수의 속성을 가진다. 이 계수호의 손잡이와 계수를 제외한 반구의 짧은 수평구연, 동체로 연결되는 경 기부와 견부에 약하게 단을 지운 속성 등은 [그림 2-4~9]의 동한 말~동오대의 반구호와 비교할 수 있다. 특히 江西省 南昌 陽明東路 高榮墓(江西省历史博物馆 1980) 출토품인 [그림 2-2]의 반구호와 비교하면 경부가 좀 더 세장하고, 횡공의 兩耳와 종공의 四耳인 것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제 속성은 거의 흡사하다.

高榮墓에서 출토된 木牘에는 “弟子高榮再拜 間起居 沛國相 字萬綏”라는 묵서가

있는데, 이 가운데 고영이 “패국 상현 사람”이라는 문구를 통해 무덤을 조영한 시간대를 산정할 수 있다. 보고문에서는 『三國郡縣表附考證』에 근거하여 “漢高祖가 그의 고향인 小沛를 ‘沛國’으로 격상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동한 建安末年에는 ‘沛郡’으로 되었다. 동한 멸망 이후 曹魏 太和6년인 232년에 ‘沛國’으로 복원되었다가, 景初2년인 238년 相縣, 肖縣 등 10개 현으로 분할되어 ‘譙郡’ 관할지로 되었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고영을 장송한 시점은 232~238년 사이일 개연성이 높으며 그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다.<sup>2)</sup>



[그림 2] 출현기 계수호와 기년 산정 자료

2) 혹여 목독의 묵서에 옛 지명 내지는 출생 시의 지명을 평기하였다면 좀 더 하향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공반 유물로 보아 그 개연성은 낮다.

고영묘에서 공반 출토한 유물들은 전형적인 동오 조기의 유물을 포함하여 동한 만기~삼국 조기로 편년할 수 있는 [그림 2-3]과 같은 靑釉陶器를 비롯하여 동한 조기에 유행한 박국경 및 동한 만기~삼국 조기에 유행한 부조식 신수경도 공반하였다. 특히 [그림 2-2] 반구호의 동체에 베풀어진 細格子 麻布文은 동한 말~동오대에 한정하여 유행한 속성이며, 서진대의 자기와 도기에는 보이지 않는 문양 속성이다(权奎山 2008).

[그림 2-4]의 청자반구호는 경부에 파상문이 있는 전형적인 동한 만기의 형식이다. 반면 [그림 2-9]의 반구호는 직립상으로 내경하는 구연부, 동체 높이보다 동체 폭이 더 큰 역삼각형에 가까운 동체의 속성으로 보아 나머지 반구호와 형식 차이가 뚜렷하다. 이와 같은 역삼각형 동체에 직립하는 구연은 전형적인 서진대 반구호의 속성이다. 이러한 시간성을 반영한 제 속성으로 보아 [그림 2]의 반구호는 4-5-6-7·8-9의 순서로 형식 조열 할 수 있으며, [그림 2-9]는 서진 연간의 동오 말로 편년된다. 그리고 鄂城 六朝墓M2079의 계수호와 고영묘의 반구호는 동체와 반구의 속성을 비교하면 [그림 2-5·6]의 중간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鄂城 六朝墓M2140, M2148을 동오 중기(229~252년)로 편년한 반면, M2079는 서진 후기로 보고하였다. 이는 아마도 계수호가 서진-동진 교체기에 출현하였다는 기준 편년관에 기인한 듯하다.

한편 M2079 계수호는 일반적인 계수호와는 전혀 다른 구연부 속성을 가진다. 즉 [그림 2-1] 계수호는 2단 반구에 수평 구연인 것에 반해, 동진대 계수호의 반구는 1단이며 구연부는 모두 직립 구연이다. 이러한 수평 구연은 [그림 2-5·6·7·8]과 같이 동오의 반구호에서만 보이는 전형적인 속성이며, 동진대 반구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므로 鄂城 六朝墓M2079의 [그림 2-1] 계수호는 동오 전반기, 좀 더 세분하면 동오 전반기의 후단 내지는 동오 중기에 해당하는 240년대를 전후한 시간대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계수호로는 [그림 2-10]의 고궁박물원 소장 계수호, [그림 2-12]의 江西省 南昌縣博物館 소장 계수호, [그림 2-13]의 鄂城機場 六朝墓 출토 계수호를 들 수 있으며, 이 계수호들은 동오~서진 전반의 편년이 가능하다.

아울러 281년에 조영된 杭州 鋼鐵廠 西晉“太康二年”紀年墓(张玉兰 2007)에서 출토된 [그림 2-11]의 계수호는 상기한 계수호들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형식이다. 이는 서진 전반기에 계수호가 적어도 두 유형으로 분류될 정도로 다양화가 시작하였다 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곧 늦어도 281년 이전에 이미 계수호가 출현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계보와 출현 배경

### (1) 계보

계수호는 동한대까지는 보이지 않던 독특한 형태의 주전자 기종이다. 계수호에서 구연부와 동체를 잇는 손잡이는 계수호 등장 이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던 속성이다. 물론 商~西周代의 청동기 중에는 [그림 3-1]과 같이 동체와 경부를 연결하거나 동체부에 종향으로 손잡이를 부착한 青銅盃가 있다. 그렇지만, 이 기종은 동주대가 되면 [그림 3-2]처럼 구연부를 가로지르는 들보형 손잡이로 바뀌고, 西漢代에는 [그림 3-4]와 같이 鐎斗形인 有柄銅鐎盃로 변하였다.

상~서주대 청동화의 종향 손잡이 속성을 계수호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1,000년이 넘는 시간적 격차 및 東周代와 漢代 또한 각각 변천된 청동화의 형식이 존재하므로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주구에 계수를 비롯하여 동물 머리를 장식한 예는 상대 아래 청동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6~8]처럼 동한~서진 대 銅鐎盃는 닭 머리형 주구가 부착된 鷄首有柄銅鐎盃가 대부분이다. 江西省 萍鄉博物館과 雲南省博物館 소장품인 동한대 銅鐎盃는 물론이고, 249년에 사망한 동오의 명장 朱然 무덤에서 출토된 鐎盃 역시 注口部가 鷄首인 鷄首有柄銅鐎盃이다(王俊 2006: 55). 이처럼 계수호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닭 머리 모양의 주구를 가진 기종이 사용되고 있었다.

계수호의 특징인 壺 기종에 구연부와 동체를 연결한 반고리형 손잡이는 고대 로



1: 河南省 三門峽市 虢國墓, 2: 山西省 長治 分水嶺 戰國墓M36, 3: 故宮博物院, 4: 濟南市博物館, 5: 河南省 濟源博物館, 6: 江西省 萍鄉博物館, 7: 山東省 臨沂市博物館, 8: 江西省博物院 (3, 5 도기, 8: 青釉陶, 나머지 청동) (※ 족적 부동)

[그림 3] 兩周代의 青銅盃 및 西漢~西晉代의 有柄銅鐎盃

마와 근동지역의 기물에서 확인된다. [그림 4]는 1~3세기 로마에서 유행한 파수부호 인데, 청동기, 도기, 유리기 모두 이러한 속성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이 손잡이에는 무문양도 있지만, 동물, 사람 문양으로 장식한 것이 많다.

동한대로 편년한 江蘇省 徐州에서 출토된 [그림 4-9]의 청동기는 전통적인 중원 양식이 아니다. 이와 같은 청동기는 동시기 로마의 청동기 및 쿠샨왕조기의 간다라 양식 청동기와 비교할 수 있다. 낮은 굽상 대각, 구연과 동체 견부를 잇는 동물문식 파수, 경부의 돌대 등 주구의 속성을 제외하면 서기 1~2세기대 로마의 청동기인 [그림 4-4 · 6 · 7 · 8]과도 아주 유사하다. 특히 [그림 4-6 · 8]은 각각 파수와 구연의 속성을 제외한 전체적 기형이 거의 흡사하다. 한편, 파수와 출수구인 주구를 부착한 것 및 동체와 경부의 중위에 돌대를 돌려 상하 구분한 속성은 서기 1~3세기의 간다라 양식인 [그림 5-1 · 4 · 5]와 낮은 대각과 경부 돌대는 [그림 5-6]의 청동기와도 비교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江蘇省 徐州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로마 양식과 간다라 양식이 융합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간다라 양식은 처음에는 헬레니즘 양식이 유입되어 형성



[그림 4] 1~3세기 로마의 파수부호 각종 및 徐州 출토 동한대 청동기

되었지만, 헬레니즘이 쇠락한 이후에는 로마문화가 유입되어 영향을 미쳤다(Peter Stewart 2024: 34~56). 그러므로 徐州 출토 청동기는 광의의 개념에서 간다라 양식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廣西省 合浦 嶺脚村M4, 廣西省 梧州 富民坊墓, 그리고 浙江省 余姚市에서征集된 [그림 5-1 · 2 · 3]은 1~3세기 쿠샨왕조기의 간다라 양식 청동기이다(林立 2023). [그림 5-10 · 11]은 각각 쿠샨왕조기인 1세기의 50~60년대와 2~3세기로 편년하는 화상석인데(Peter Stewart 2024: 25 · 50), 벽화에 표현한 [그림 5-10' · 11']은 상기 한 청동 주전자와 같은 형태인 것에서 이 편년은 적합하다. 이 청동기들은 출토된 지역으로 보아 육로보다는 해양교류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림 5-4 · 8 · 9]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 북부에서도 이와 동일한 청동기를 비롯하여



1 : 广西 合浦嶺脚村M4, 2 : 广西 梧州富民坊墓, 3 : 余姚市博物館 藏, 4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5,5-1 : 파키스탄 스와트[Swat] 출토(日本 松戸博物館 藏), 6 : Cleveland Museum of Art 소장, 7 : 江蘇 徐州 출토(南京博物院藏), 8 : 베트남 하노이[HA NOI/河内] 전실묘(하노이박물관소장), 9 : 베트남 타인호아[Thanh Hoa/清化] 출토(파리 세르누치박물관[Musée Cernuschi] 소장), 10 : 간다라양식 '싯타르타' 벽화(Peter Stewart 2024;500에서), 11 : 간다라양식 '석가 탄생' 벽화(Peter Stewart 2024;25에서)

[그림 5] 간다라 양식 청동 주전자



[그림 6] 계수호의 계보 및 출현과 전개

쿠샨왕조기의 청동기 및 이를 모방한 방동 도기가 출토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인도 서북지역의 쿠샨왕조와 직접 교류를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하였을 수도 있다.

쿠샨왕조의 카니시카왕 재위기(128~151년)에 중국에 대승불교를 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형식의 간다라 양식 청동기가 출토된 예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 청동기들이 베트남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동한대로 편년하는 江蘇省 徐州에서 출토된 [그림 6-5]의 청동기는 대승불교 전래와 관련하여 간다라 지역에서 직접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도 있지만, 淮水에 접한 徐州가 화북과 화남의 경계지역임을 고려하면 이 청동기 역시 서한 아래 동남아와의 해상교역의 창구인 合浦 등 화남 지역에서 해상루트를 통해 들여왔을 수도 있다.

간다라 양식 청동 주전자가 출토된 合浦 嶺脚村 M4와 梧州 富民坊 墓는 상한을 동한 말, 하한은 삼국시대로 편년하고 있다(林立 2023). 따라서 이 청동기는 동한 말 내지는 동오 초기에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林立 (2023)은 이 청동기를 佛具인 淨瓶[金瓶]으로 보고, 화남지역에서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여 불교유입 루트의 다원성을 제시하였는데,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차치하고 이와 같은 간다라 양식의 청동제 주기가 동오의 영역인 화남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현상은 계수호가 동오에서 처음 출현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余姚 太康八年 西晋墓에서 출토된 [그림 6-11]의 계수호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11] 계수호의 파수는 동주시대 청동화와 비교할 수 있지만, 들보형 손잡이 하단에 사람 모양을 배치한 것은 간다라 양식의 청동 주전자에서도 확인되는 속성이기도 하다. [그림 5-5-1 · 6]의 청동 주전자의 파수를 살펴보면 전자는 구연과 연결한 손잡이의 양쪽 하단에 사람 형태를 배치하였고, 후자는 [그림 6-11, 그림 1-3]과 같이 손잡이와 주구 사이에 사람을 배치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 6-11] 계수호의 들보형 손잡이는 전국시대의 청동기보다는 쿠샨왕조기의 간다라 양식 주전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林立 2023). 한편 출수구인 주구는 [그림 3-6~8]과 [그림 6-3 · 7]처럼 동한 아래의 계수유병초화의 닦머리 모양 주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림 6-11]의 余姚 太康八年 西晋墓 출토 계수호는 외래의 간다라 양식 주전자와 전통의 鷄首有柄銅鑊盃 각각의 속성들이 융합되어 출현한 새로운 기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경호에 닭 머리 모양 주구, 구연과 견부를 잇는 손잡이 속성을 가진 계수호 역시 전통적 요소와 외래적-간다라 양식 요소가 융합되어 출현한 기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 요소는 동한 아래 반구호와 세경호의 기형 및 계수유병동초화의 닭 머리 모양 주구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다. 외래적 요소는 세경호에 부착한 동물 머리 모양 주구, 구연과 동체 견부를 잇는 손잡이이다. 외래적 요소는 간다라 양식에서 계보를 찾을 수 있지만, 장경호[세경호] 기형에 구연과 동체를 잇는 손잡이를 부착한 속성은 로마 양식까지 그 계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한편 간다라 양식 주전자의 코끼리 와 짐승의 머리를 주구로 한 속성은 계수호를 비롯하여 양두호, 호두호 등 동물 머리 모양을 장식한 기형이 등장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외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계수호는 주구를 가진 주전자로 출현단계부터 일상용기로 제작하였음이 틀림없다. 南京市 丁墻村 東吳墓에서 출토된 [그림 1-7]의 青瓷 注口罐은 구연부 바로 아래의 동체 상부에 짧은 나팔 모양의 주구가 있다(沈宏敏 外 2005). 東吳 景帝와 皇后의 합장릉으로 추정하는 馬鞍山市 當餘 天子墳(264년)에서 출토된 [그림 1-5]의 青瓷鷄首罐도 계수의 부리에서 동체 기벽까지 관통하는 출수구인 주구가 있다(王俊 2006: 101~102; 李德文 外 2007). 馬鞍山市 宋山 東吳墓에서 출토한 [그림 1-6]의 청자계수관도 주구의 기능을 가진 계수가 부착되어있다. 이처럼 동오대에 계수관과 같은 青瓷 注器가 제작된 것을 통해서도 당시 일상의 용기로 계수호가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 (2) 출현 배경

주구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수호의 출현은 삼국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닭은 전통의 도덕인 ‘文, 武, 勇, 仁, 信’의 五德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취급하였다.<sup>3)</sup> 그리고 鷄는 음운이 “吉”, “居”, “基”와 같고, 암탉은 다산하므로 “多子多福”, “迎來光明”, “居家安樂”, “百世流芳”, “萬代居官”, “誠作基石 耿爲棟梁” 등의 뜻을 가진 吉祥安寧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다(郭振

3) 서한대 韓嬰이 지은 『韓詩外傳』 卷二第二十三章에 “古人讚揚鷄有五德 頭戴冠者 文也, 足博距者 武也, 敵在前敢鬪者 勇也, 見食相呼者 仁也, 守夜不失時者 信也”.



1: 故宮博物院 藏, 2: 馬鞍山市 當涂城, 3: 杭州市 鋼鐵廠 西晉 太康八年墓(287), 4: 宣城市  
西郊 石板橋, 5: 馬鞍山市 霍里鎮 西晉墓, 6: 上海博物館 藏

[그림 7] 소형 계수호

文 2012). 당시 사람들의 닭에 관한 이러한 인식 또한 계수호가 출현한 주요 동인의 한 요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육조 귀족사회에서는 현학의 도교와 염세한 불교의 변성으로 飲酒와 飲茶 문화가 더욱 유행하였다. 이러한 청담 사조에 걸맞게 飲酒와 饮茶 문화에서도 미적 우아함을 추구하고자 한 당시의 시대상이 도자 문화에도 반영된 결과 계수호가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계수호 가운데 출수공이 없는 계수를 가진 기형은 무덤 부장용 明器로 제작한 것 일 수도 있으므로(涂師平 2009), 반구호와 관 등의 기종에 계수호를 비롯하여 동물 머리를 부착한 것은 장식 효과를 위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림 7]과 같이 손잡이가 없는 계수호 특히 계수관과 단경 계수호는 그릇 전체가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형상과도 유사하다. 이 기형은 양한시대는 물론 삼국시대까지 명기로 제작되어 무덤에 부장되던 도제 닭[陶鷄俑]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장용 명기의 역할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그림 7-2]의 계수관의 동체에 장식한 문양이 명기의 대표 기종인 혼병, 특히 서진대 혼병의 동체부에 새긴 문양과 거의 흡사한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향유병 등 화장품 용기로 사용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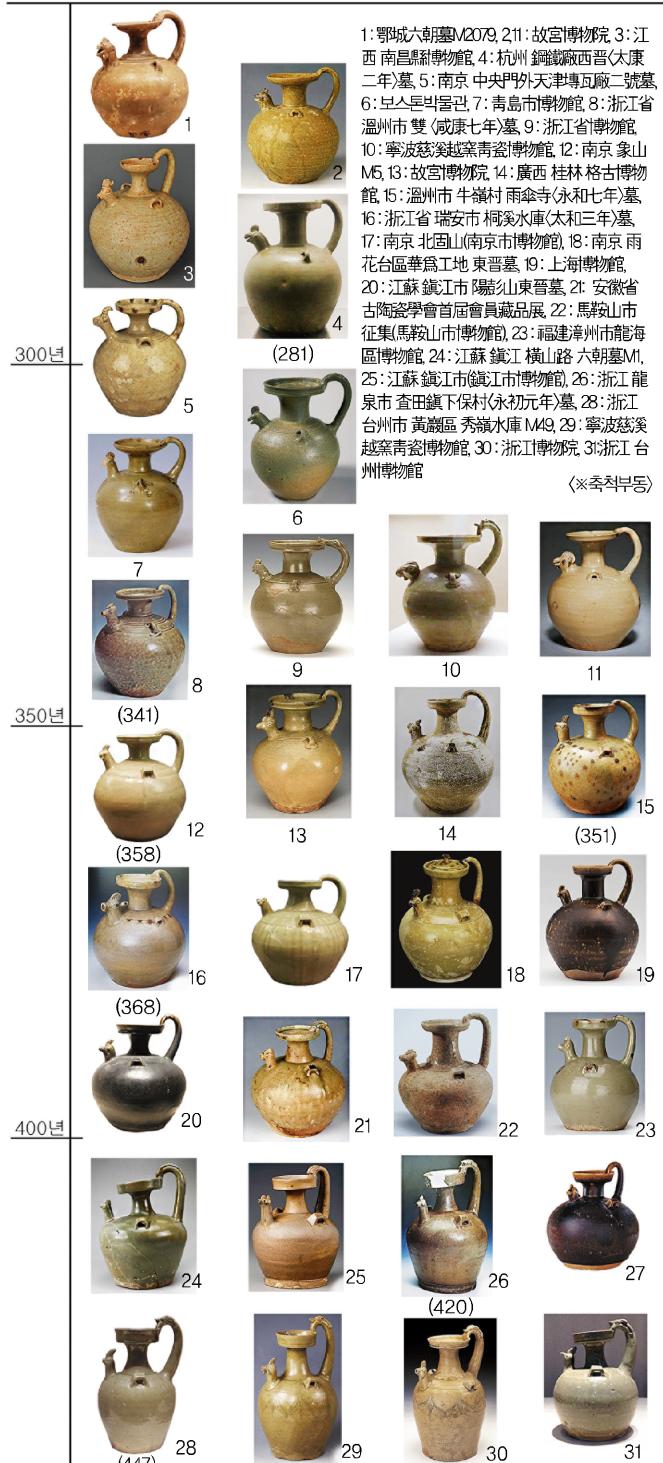
계수호가 출현한 이후 화남의 육조 무덤에서는 명기로 제작한 도제 닭이 출토되는 예가 희소하지만, 화북지역에서는 위진대는 물론 16국시기의 무덤에서 여전히 도제 닭이 출토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 3. 계수호의 전개

동오 중기에 출현한 계수호는 반구호에 출수공이 있는 목이 긴 계수와 반대편에 곡선상의 손잡이를 붙인 새로운 기형의 주전자이다. 이때 세장한 경부는 주전자로 써

계수의 출수구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1]의 초현 계수호는 구형 동체에 세장한 속요상 경부, 경부에서 나팔형으로 연결되는 2단 반구에 수평 구연, 사실적인 닭 머리의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오 만기가 되면 [그림 8-4]와 같이 종 타원형 동체, 폭이 넓은 통형 경부, 경부에서 직각에 가깝게 逆“凡”字형으로 꺾여 형성된 직립 구연의 반구 속성을 가진 계수호가 파생되어 두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281년에 조영된 무덤에서 계수호의 유형 분화를 나타내는 [그림 8-4]가 출토된 현상은 당시 이미 계수호가 일반화되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늦어도 동오 만기 이전에 계수호가 출현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동진대에는 계수호의 유형 분화가 확대되는데, [그림 8]에서 보듯이 최



[그림 8] 계수호의 형식변천도

소 4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진 초기에는 계수 이외에도 새롭게 양 머리와 호랑이 머리 모양의 주구가 부착된 [그림 8-10 · 11]의 羊頭壺와 [그림 13-6]의 虎頭壺가 등장하고 동시에 용두 문양 손잡이인 龍頭柄 속성이 더해졌다. 양두호와 호두호는 동진 중기까지는 유지되었지만, 계수호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용두병 속성은 [그림 8-24~26]에서 보듯이 동진 만기가 되면 완전히 일반화되어 쇠퇴기인 初唐期까지 지속하였다. 동진 중기에는 청자 이외에도 [그림 8-19]와 같은 흑유계수호가 출현한다. 동진-유송 교체기가 되면 [그림 8-25]와 같이 계수와 손잡이를 각각 하나씩 덧댄 쌍계수와 쌍파수의 속성을 가진 계수호도 나타났다.

유송대가 되면 역제형으로 길어진 동체 속성으로 변하는데, [그림 8-29 · 30]과 같이 연화문을 시문한 계수호도 있다. 아울러 유송 말에는 출수구의 기능이 퇴화한 계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齊를 거쳐 梁代가 되면 출수공이 없는 것이 더 많아져 이후 거의 고착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계수호의 기능적 변용 내지는 이를 대체한 다른 새로운 기종의 출현을 시사한다.

이 새로운 기종으로는 장경병을 들 수 있다. [그림 11]의 北朝 東魏 李希宗墓 (540)에서 출토된 주구 세트에는 청동 세경호[병]이 있다(石家莊地區革委會文化局 文物發掘組 1977; 張學鋒 編著 2009: 219). 山西省 大同 北魏墓群 M9(461) 벽화의 [그림 10-9]의 墓主宴飲圖에는 준과 함께 대 · 소형의 세경호[술 항아리]가 묘사되어 있는데(徐光冀 主編 2012b: 31), 주전자와 함께 병 형태의 술 항아리가 더해져 주기의 종류가 다양화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북조시대 만기가 되면 [그림 9]<sup>4)</sup>에서 보듯이 세장한 경부를 가진 장경병이 출현한다. 특히 육조 만기 무덤에서 공반한 [그림 9-1~3]의 술병과 잔은 주기 세트로 볼 수 있다(當塗縣文物事業管理所 2008). 물론 동한대까지 청동제와 도제 장경병은 유행하였다. 그러나 위진시대와 남조 전반기까지는 계수호에서 파수와 계수가 없는 형태의 반구호는 있지만, 경부가 세장한 장경병의 출토 예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북조 만기에 장경병이 재차 유행하여 당대까지 유지된 것은, 酒器로서의 계수호 역할을 이어받은 새로운 기종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림 6-14]에서 보듯이 주전자로서의 계수호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

4) [그림 9-4~9]는 <https://baike.baidu.com/item>에서 인용.



[그림 9] 남북조 만기~당의 장경병(1~3 · 5:남조 4 · 7:북조 6 · 8:수 9:당)

남북조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기고가 30~40cm 이상의 대형계수호가 나타나는데, 50cm를 넘는 것도 있다. 남조에서는 경부에 돌대를 여러 개 돌린 죽절형 경부를 가진 기형이 유행하였다. 북조에서는 북위 만기에 자기를 생산하면서 계수호를 제작하였는데, 북제에서는 대형화와 함께 貼花技法에 의한 다양한 양각 문양으로 동체를 화려하게 장식한 [그림 14-7 · 8]의 계수호 형식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손잡이는 용두 장식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대형화한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隋代에는 백자 계수호도 등장하여 유행하였다가 初唐时期를 거치면서 이후 계수호는 자취를 감추었다.

### III. 계수호의 용도

삼국시대 동오에서 출현한 계수호는 음료를 담아 따르는 일상용기인 주전자인데, 남북조시대 만기에는 계수가 더는 출수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속성으로 변하였다. 특히 북조의 북제에서는 첨화기법으로 장식한 화려한 문양을 가진 계수호가 유행하였다. 이처럼 계수호는 시간대별 기형의 변용이 뚜렷한데, 이는 계수의 기능 변화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육조의 東吳~齊代의 계수호는 출수공이 있는 계수를 가진 주전자의 역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齊 만기 이후 특히 梁代가 되면 계수는 출수공이 없는 속성이 보편화되고, 동시에 기형의 대형화와 파수의 용두 장식이 강조되는 등의 속성변화도 함께 보인다. 이처럼 남북조시대 중기 이후에는 주전자의 기능을 한 계수호는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출수공이 있는 계수, 실용적 손잡이, 세장한 경부 등의 속성을 가진 주전자, 즉 일상용기로 사용되던 계수호는 점차 장식 효과를 강조한 기형으로 변용되었다. 남북조 만기에 대형화한 계수호는 그 자체로도 장식품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장식 품으로서의 계수호는 주인 사후에 무덤에 함께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郭振文 2012).

## 1. 일상용기

동오에서 출현한 일상용기로서의 계수호는 주전자로 酒器와 茶器의 기능을 예상 할 수 있다(朱伯謙 2000: 14).

동한 말~위진대에는 전란이 심한 화북지역에 비해 화남지역의 동오는 상대적으로 전란의 직접적 영향을 덜 받았다. 이는 화남지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때부터 강남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화남지역은 화북지역과 비교하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육조 귀족 문화의 성립배경이 되었다.

위진대에 출현한 竹林七賢으로 대표되는 清談思潮는 육조의 귀족사회에서 더욱 성행하였다. 육조 사회에서는 청담 사조와 함께 도교와 불교사상도 번성하였는데, 이는 飲酒와 飲茶 문화가 더욱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청담 사조는 물질 문화에서도 우아함과 미적 화려함을 추구하고자 하였는데, 계수호는 이러한 당시의 시대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1) 酒器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따뜻하게 데운 술인 溫酒[熱酒]를 마시는 음주문화가 있었는데, 위진시대에는 온주를 마시는 것이 더욱 유행하였다(쑨지(홍승직 역) 2017: 76~77). [그림 10-2]는 山東省 金鄉縣 東漢 朱鮪祠堂 화상석이다. 이 화상석에는 두

종류의 술은 담은 樽이 표현되었는데, [그림 10-3 · 4]는 각각 [그림 10-22]와 [그림 10-23]의 청동 준과 같다. 전자가 찬술 즉 凉酒用樽이며, 후자는 溫酒用樽이다.

위진대의 벽화인 [그림 10-6]의 준은 [그림 10-22]의 형태이며, 瓷器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림 10-19]의 청자 준으로 볼 때 위진대에는 청자 준이 청동 준과 칠기 준을 대체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위진대가 되면 술잔으로 이용한 칠기 이배 외에도 잔으로 이용한 청자 완이 유행하는데, 이는 새로운 음주문화에 따른 酒器의 변화를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위진대에 온주를 마시는 음주문화가 한층 유행하였다는 연구를 고려하면 육조 사회에서는 [그림 10-5]와 같은 청동 초두 내지는 [그림 3-7 · 8]의 유병동초화를 이용하여 술을 데운 후 계수호와 같은 주전자에 옮겨 담아 마셨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東魏 李希宗墓에서 출토된 주구 세트에는 준과 국자가 없고 대신 청동 세경호가 있으며, 山西省 大同 北魏墓群M9 벽화의 [그림 10-9]의 墓主宴飲圖에는 준과 함께 매병 형태를 한 대 · 소형의 술 항아리가 확인된다(徐光冀 主編 2012b: 31). 한편, 비록 후대의 遼 · 金代 무덤벽화이지만, 매병의 술을 樽에 따르는 모습이 있는 [그림 10-17]의 進酒圖와 [그림 10-11 · 14] 벽화에는 [그림 10-18]과 같은 온주를 담은 注壺[주전자]를 뜨거운 물을 담은 溫碗에 넣어 술의 온기를 유지한 溫酒器[注子注碗]가 묘사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로 보아 위진시대부터는 찬술인 凉酒는 준에, 따뜻한 溫酒는 계수호와 같은 주전자에 담아 마셨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고궁박물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唐代 그림인 宮樂圖에는 탁자 가운데 술이 담긴 준이 놓여 있고, 국자로 준의 술을 떠 耳杯에 따르는 모습이 있다(陳履生 · 張蔚星 編 2000: 330).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진대에 온주를 마시는 문화가 유행하였다고 하지만, 당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찬술을 마시는 풍경을 볼 수 있어 고대 중국에서는 溫 · 凉의 음주문화가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조시대의 계수호는 온주를 담거나, 혹은 [그림 10-12 · 16]처럼 솟불을 담은 화로나 초두에 올려 술을 데우는 烹沸用 주전자로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서한대 아래 술과 음료를 데우는 용도로 사용된 有柄銅鑊盃의 출토 예가 서진대까지는 확인되지만, 동진대가 되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은 계수호의 출현 및 그것의 일반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육조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계수호는 청동제 鐎斗와 공반하는 예가 많다. 이 초두에는 無足形과 三足形이 있는데, 전자는 술을 데우거나 찻물을 끓이는 화로



1:洛陽市 北郊 朱村墓, 2~4:山東省 金鄉縣 朱鈞祀堂(山東博物院/동학), 5:江蘇 常州 武進(常州博物館), 6:甘肅省 高臺縣 河西村 地埂坡 위진묘M4, 7,8:南京 西善橋宮山墓, 9:大同市 北魏墓群M9(461), 10,11:河北省 宣化下八里M7 張文藻墓(1093), 12:河北省宣化下八里M10 張匡正墓(1093), 13~16:河北省 宣化下八里M5 張世古墓(1117), 17:北京市 石景山區 八角村 金墓(1143), 18:景德鎮窯 宋代溫酒器(上海博物館), 19:安徽省 馬鞍山市 霍里鎮西晉墓, 20,21:馬鞍山市 朱然墓(249), 22,23:山西省 右玉縣 大川村(西漢河平三年(BC 26) 山西博物院), 24:長沙 銅館窯博物館, 25:西安市 東郊 唐墓(陝西博物院)

[그림 10] 벽화의 酒器와 茶器 및 해당 유물

의 용도를 하였을 것이다. 특히 후자는 술을 직접 데우는 鐎盃의 기능<sup>5)</sup>도 하였을 것이다. 河北省 贊皇縣 東魏 李希宗墓에서 출토된 [그림 11]의 주구 세트에서 가운데에 놓여 있는 청동 초두<sup>6)</sup>는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계수호, 청동 초두, 청자 완, 청자 잔 등은 ‘酒具’ 혹은 후술할 ‘茶具’의 세트로 일괄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수호의 명칭과 용도가 술주전자였음



[그림 11] 東魏 李希宗墓의 酒具 세트

5) 이 경우 [그림 10-5]와 [그림 11]의 초두와 같이 구연부에 주구가 달린 기형일 것이다.

6) 이 청동기는 외형상 초두의 유사하지만, 주구가 달린 구조로 보아 음료를 담아 직접 데우는 盞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을 나타내는 고고학 자료로는 南京市 伏家橋 東晉墓에서 출토된 [그림 12]의 유물이 있다. 이 유물은 상부가 일부 결실된 계수호인데 바닥에는 “**豐主姓黃名齊之**”라는 문구가 음각되어있어, 당시에는 계수호를 豐[罌]이라고 칭했음을 알 수 있다. 계수호가 酒器라는 연구를 살펴보면, 고고학 자료로서 [그림 12]를 제시하는 동시에 豐에 대한 다음의 문헌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杜金鵬 編著 1998: 241).

豐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西漢 史游의 『急就篇』 十三에 “**罌 罧類容器, 小口大腹**”이라 기술되어있고, 註釋에는 “**豐 甄之大腹者也**”라고 하였다. 東漢 王充의 『論衡·譏告』에는 “**釀酒于罌, 烹肉于鼎**”의 문구가 있다. 東漢代까지 계수호와 같은 기형이 없었고, 위진대의 계수호는 양조, 즉 술을 담그기에는 작고, 기형 또한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양한시대에 양조에 이용한 도기인 앵은 계수호보다는 큰 ‘**小口大腹**’ 형의 항아리였을 것이다.

西晉代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劉伶의 『酒德頌』에는 “**先生于是 方捧豐承槽 衡盃漱醪**”라는 시구가 있는데, ‘捧豐’에서 보듯이 앵을 두 손으로 반들어 술을 따르고 권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槽는 술 통인 樽이므로, 앵은 술주전자였을 개연

성이 충분하다. 『酒德頌』의 “捧豐” 및 伏家橋 東晉墓에서 출토된 鷄首壺 저부의 “豐” 銘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계수호는 앵으로 불렸으며, 술을 담아 따르는 주전자인 酒器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시구는 서진 만기 이전에 이미 주기 역할을 한 계수호가 존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sup>7)</sup>

[그림 10-25]는 陝西博物院에서 소장하고 있는 鳳首(鷄首?)壺[執壺]인데, 경부의 차이를 제외하면 육조의 계수호와 같은 형태를 가진 注器다. [그림 10-24]는 唐代의 銅官窯에서 출토된 주기로 [그림 10-25]와 같은 기형이다. 唐代 동판요에서 제작된 주기는 동체에 “春人飲春酒”, [그림 10-24]의 “美春酒” 등 술과 관련된 시구를 적은 것이 많이 확인되므로 술 주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쑨지(홍승직 역) 2017: 76). 따라서 당의 주기와 비교하면 이와 유사한 계수호는 술주전자로 사용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2] “**豐主姓黃名齊之**” 銘 계수호

7) 劉伶은 생몰년(221~300)과 서진 조정에서 泰始二年(266年)에 劉伶에게 임조를 권하는 특사를 파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위 만기~서진 중기에 활약한 인물임을 유추할 수 있다.

계수호가 전국시대 이래 술잔으로 사용된 耳杯와 공반하는 예는 南京 象山M7을 비롯한 동진대 무덤 출토품에서 종종 확인되는데, 이 또한 계수호가 술 주전자로 사용되었음을 방증하는 속성이다.

## 2) 茶器

주전자인 계수호는 주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는데, 여러 식용 식물과 과일을 이용하여 만든 음료를 마시는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차를 마시는 茶器를 들 수 있다.

위진시대의 飲茶에 관해서는 魏나라 張揖이 저술한 『廣雅』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의 차를 마시는 방법은 “찻잎을 채취하여 (으깨어) 떡 모양[餅]으로 만드는데, 늙은 잎은 쌀 고물을 이용하여 병을 만든다. 차를 마실 때는 먼저 떡차[餅茶]를 불에 넣어 적색으로 구워내어 빽은 후 자기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마시는데, 혹은 파, 생강, 꿀 등을 함께 넣어 마셨다”<sup>8)</sup>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때 차를 넣어 마시는 자기 그릇 내지는 찻물을 끓이는 주전자로 계수호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후 宋代의 飲茶 방법은 그 이전과 달라 茶具에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遼·金代 무덤벽화인 [그림 10-10·11]에는 주기와 다기가 모두 한 공간에서 확인된다. 탁자 아래에는 붉은 마개를 한 술 항아리가 있고, 탁자 위에는 술 항아리와 함께 溫酒器가 놓여 있다. 술 항아리 옆의 검은색 칠기는 차를 담은 茶函이며, 탁자 주변에는 茶碾 및 漆盤에 備茶 세트가 담겨있고 화로 위에는 주전자를 얹어 찻물을 끓이고 있는 풍경이다. 그리고 탁자 위의 술주전자와 화로 위의 주전자는 똑같다.

그리고 매병의 술을 준에 옮겨 담는 [그림 10-17]은 찬술은 준에 담아낸 후 국자로 잔에 따라 마셨던 것을 나타낸다. [그림 10-10·12·16]의 備茶圖에는 화로에 주전자를 직접 옮겨 찻물을 끓이는 풍경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대의 무덤 벽화자료로 유추하면 육조시대에도 酒器와 茶器의 주전자는 유사한 형태였을 것이며, 계수호가 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육조시대의 계수호는 술과 찻물을 내지는 기타 음료를 담아 직접 화로에 옮겨 데우거나, 혹은 데운 술과 차를 담아 따르는 주전자였을 것이다. 즉 육조시대의 계수호는 온주와 차를 담아 따르는 주기로도 다기로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복원할 수 있다.

8) “荊、巴間採葉作餅，葉老者，餅成以米膏出之。欲煮茗飲，先炙令赤色，搗末，置瓷器中，以湯澆覆之，用葱、姜、橘子芼之。”

## 2. 장식용기

계수호의 출현과 함께 출수공이 없는 동물 머리를 부착한 소형의 계수호, 양두호, 호두호 등이 나타났다. [그림 13-1 · 5 · 6]의 虎頭罐과 虎頭壺, [그림 13-2 · 3]의 鷹首壺(南京市文物保管委员会 1965; 南京博物館 2004: 54), [그림 13-4]의 羊頭壺(梁正宏 · 肖夢龍 · 劉麗文 2010: 73)처럼 호랑이, 매, 양의 머리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러한 동물 두식은 동오와 서진의 청자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양각으로 표현한 鋪獸文과 佛像 및 음각으로 처리한 격자문, 능형문, 연주문 등의 다양한 문양처럼 장식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북조에서는 계수호가 남조 만큼 널리 유행하진 않았지만, 16국 시기와 북위의 무덤에서 드물게나마 계수호를 부장한 예가 확인되는데, 모두 화남지역에서 수입한 것이다.

북위 만기인 5세기 말엽 화북지역에서 청자 생산을 시작하면서 북조에서도 계수호를 제작 유통하였다. 북조에서 청자의 생산과 함께 계수호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는 동시기 남조의 것을 충실하게 모방한 듯하다. 그렇지만, 北齊代에는 그 기형의 다양성과 문양의 화려함 등에서 남조의 계수호를 능가하였다.

남조에서는 일부 연화문을 시문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문양으로 장식한 계수호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북조의 계수호는 칩화기법을 이용한 양각 문양으로 기면



[그림 13] 동물 머리 장식 호(1 · 5 · 6:虎頭 2 · 3:鷹頭 4 · 7:羊頭)

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sup>9)</sup> 북제의 무덤인 山西省 祁縣 白圭村 韓裔墓(567년)의 [그림 14-7]의 계수호(陶正刚 1975)와 山西省 太原市 北齊 妻叡墓에서 출토된 [그림 14-8]의 계수호(山西省考古研究所 · 太原市文物管理委员会 1983)는 북조 만기 계수호의 화려한 문양을 대표한다. 그렇다고 북조 만기의 계수호가 모두 화려한 문양효과를 낸 것은 아니다. [그림 14-9]의 계수호처럼 파수만 용두병인 소문 계수호도 공존하였다.

南北朝 만기~隋代가 되면 북조의 계수호는 [그림 14-7~9]와 같이 저부가 좁은 구형에 가까운 동체부에 목이 좁고 긴 속요상 경부의 속성을 가진 마치 梅瓶과 유사한 기형으로 변하였다. 남조 지역에서는 [그림 14-1]의 계수호와 [그림 14-3 · 4] 및 [그림 14-5 · 6]의 수 · 당대 대형계수호에서 보듯이 대 · 소형이 공존한다(柴福有 2015: 211; 曾布川寛 · 岡田健 2000: 251). 문양은 소문과 연화문 및 [그림 14-6]과 같이 일부 당초문도 확인된다. 대형계수호는 장타원상 동체에 경부는 竹節狀의 원통형이고, 구연부는 반구가 퇴화된 속성으로 변천한 것을 알 수 있다.

북조 계수호의 화려한 문양은 隋代에도 계속되었다. 물론 李靜訓墓(唐金裕 1959) 출토품인 [그림 14-10]처럼 무문양 백자 계수호도 함께 제작되었다. 李靜訓墓에서 는 雙柄雙腹의 백자 반구호가 공반하였다. 이 기종은 일상용기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쌍복을 제외하면 [그림 14-11 · 12]의 당대의 백자와 당삼채(東京國立博物館 1994)<sup>10)</sup>도 雙柄 속성이다.

[그림 14-11]의 백자와 [그림 14-12]의 당삼채는 흡사하다. 당삼채는 당 조기의 대표적인 무덤 부장용 전문 용기로 唐 高宗朝에 출현하여 측천무후기의 전성기를 거쳐 8세기 30년대 이후인 玄宗朝 天寶 연간에 쇠퇴하였다. 당삼채는 무덤의 부장용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중앙 관에서 엄격하게 통제 관리한 施釉彩陶였다(中國硅酸鹽學會 主編 2006: 214~215).

당 조기의 귀족과 황실의 무덤에 부장된 도기는 당삼채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그림 14-11]의 백자는 부장을 목적으로 제작한 기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림 14-10 · 11]의 백자는 실생활의 일상용기로는 부적당한 것을 감안하면 장식용품으로 볼 수 있다.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제작한 명기는 의례적 성격을 띤 것도 있지만,

9) 첨화기법으로 장식된 양각 문양을 사산조 페르시아의 금속기의 영향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何繼英 1996: 168~170; 방명선 2012: 140~141에서 재인용)

10) 방명선(2012: 46)에서 재인용



1:湖北 南漳 木林村, 2:慈溪博物館 藏, 3:南京市 蔡家塘M1, 4:宜興市博物館(隋), 5:安徽 滁州市 廣平鄉 大陳隋墓, 6:浙江 杭州市 靈隱九星松 唐墓, 7:山西省 祁縣 白圭村 韓裔墓(567), 8:山西省 太原市 婦孺墓(570), 9:河北 邢臺 邢窯博物館 藏, 10:陝西省 西安市 李靜訓墓(608), 11:陝西省博物館 藏, 12:일본 東京國立博物館 藏.

〈※축척부동〉

[그림 14] 남북조와 수·당의 계수호

묘주가 생전에 사용한 일상의 물품들을 그대로 모방한 기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림 14-12]의 당삼채는 당시 유행한 일상의 장식품인 [그림 14-11]의 백자를 모티브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조 만기의 40cm 전후의 대형화되고 동시에 화려한 문양을 가진 계수호와 50cm를 넘는 수·당대 대형계수호는 장식용으로 제작 사용되다가 주인 사후 무덤에 부장되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 IV. 맷음말

六朝瓷器의 대표 기종의 하나인 鷄首壺에 대한 이상의 검토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맷음말을 간다.

계수호는 화남지역에서 동오 중기에 새롭게 출현한 기종으로, 고대 중국에서 닭을

송상하던 관념이 당시의 도자 문화에 반영된 것으로, 중국 전통의 요소와 외래의 간다라 양식 요소가 융합된 주전자 기종이다.

한편으로는 현학의 도가 및 불교가 번성한 육조 귀족사회에서 飲酒와 飲茶 문화에서도 청담 사조에 걸맞은 미적 우아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계수호는 음주와 음차를 목적으로 제작한 실용기였을 것이다. 반면, 서진 대와 동진 조기에만 제작된 손잡이와 출수구가 없는 비실용적인 소형 계수호는 앞 시기에 명기로 제작한 도제 닭[陶鷄俑]을 청자의 한 기형으로 치환시킨 기물로 볼 수 있다.

계수호는 남북조 초기까지 육조 권역에서 제작되고 유행하였다. 북조에서는 북위 만기에 화북지역에서 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청자 계수호를 제작하였다. 남북조시대 만기가 되면 계수호는 크기가 커지고, 注口가 퇴화하는 등 그 기능을 상실하여 酒具 또는 茶具로 이용하기에는 적합지 않게 되었다. 반면 첨화기법을 이용하여 양각 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장식성이 강한 계수호 및 수·당대의 대형계수호는 일상의 용기보다는 오히려 장식품의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투고일 2024. 8. 27 | 심사완료일 2024. 9. 24 | 게재확정일 2024. 10. 10

## 참고문헌

### - 한국어 -

- 김일규, 2015,『백제 고고학 편년 연구』, 학연문화사.  
방병선, 2012,『중국 남북조시대 자기 鷄首壺의 연원과 양식』,『동양미술사학』1, 동양미술사학회.  
쑨지(홍승직 역), 2017,『중국물질문화사』, 알마 출판사.  
임혜빈, 2020,『삼국시대 계수호와 반구호의 형식변천과 부장연대』,『고문화』96, (사)대한박물관협회.

### - 중국어 -

- 甘肃省博物館, 1979,「酒泉, 嘉峪關晉墓的發掘」,『文物』6, 文物出版社.  
江西省历史博物馆,『江西南昌东吳高榮墓的发掘』,『考古』3, 科學出版社.  
江西省文物工作隊, 1987,『江西靖江虎山西晉,南朝墓』,『考古』6, 科學出版社.  
江蘇省文物管理委員會, 1966,『南京象坊村發現東晉墓和唐墓』,『考古』5, 科學出版社.  
霍宏偉·史家珍, 2013,『洛陽銅鏡發現與研究 - 洛鏡銅華 下冊』, 科學出版社.  
郭振文, 2012,『三国兩晉南北朝時期雞首壺型制演變初探』,『吉林藝術學院學報·學術經緯』5, 吉林藝術學院.  
权奎山, 2008,『洪州窑瓷器流布初探』,『中國歷史文物』3, 中国历史博物馆.  
南京博物館, 2004,『六朝風采』, 文物出版社.  
南京市文物保管委員会, 1965,『南京板橋鎮石閘湖晉墓清理簡報』,『文物』6, 文物出版社.  
南京市博物館, 1972,『南京象山 5號, 6號, 7號墓 清理簡報』,『文物』11, 文物出版社.  
唐金裕, 1959,『西安西郊隋李靜訓墓發掘簡報』,『山西祁县白圭北齊韓裔墓』,『文物』『考古』9, 科學出版社.  
當塗縣文物事業管理所, 2008,『當塗縣新市來隴村六朝晚期墓群』,『東南文化』1, 南京博物院.  
涂師平, 2009,『从祭祀文化到吉祥文化的演變-越窑提梁人物鸡首壺鑒賞』,『宁波通訊』11, 宁波通訊.  
陶正剛, 1975,『山西祁县白圭北齊韓裔墓』,『文物』4, 文物出版社.  
杜金鵬·焦天龍·楊哲峰 編著, 1998,『中國古代酒具』3版, 上海文化出版社.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 1983,『太原市北齊婁叡墓發掘簡報』,『文物』10, 文物出版社.  
徐光冀 主編, 2012a,『中國出土壁畫全集1』, 科學出版社.  
\_\_\_\_\_, 2012b,『中國出土壁畫全集2』, 科學出版社.  
\_\_\_\_\_, 2012c,『中國出土壁畫全集4』, 科學出版社.  
\_\_\_\_\_, 2012d,『中國出土壁畫全集5』, 科學出版社.  
\_\_\_\_\_, 2012e,『中國出土壁畫全集9』, 科學出版社.  
\_\_\_\_\_, 2012f,『中國出土壁畫全集10』, 科學出版社.  
石家庄地區革委會文化局文物發掘組, 1977,『河北贊皇東魏李希宗墓』,『考古』6, 科學出版社.  
孙媛, 2015,『鸡首壺功能再探-以鸡首与壺身是否相通为出发点』,『東方博物』54, 浙江省博物馆.  
柴福有, 2015,『浴火重生-衢州古陶瓷』, 商務印書館.  
沈宏敏·姜林海·邵磊, 2005,『南京雨花台区雨花镇丁墙村-鼓楼区峨嵋岭六朝早期墓发掘简报』,『長江文化論丛』1期, 南京大学出版社.  
梁正宏·肖夢龍·劉麗文, 2010,『鎮江出土陶瓷器』, 文物出版社.  
王蓮瑛, 1995,『余姚西晉太康八年墓出土文物』,『文物』6, 文物出版社.  
王俊 主編, 2006,『馬鞍山文物聚珍』, 文物出版社.  
李德文·解有信·吳志興·王芳·袁春榮·趙勇·費小路·栗中斌, 2007,『安徽馬鞍山宋東吳墓發掘簡報』,『江漢考古』4,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 林立, 2023,「犍陀罗式带流提梁壶考」,『故宫博物院院刊』7.
- 张玉兰, 2007,「杭州半山西晋太康二年墓」,『杭州文博』2, 杭州市园林文物局.
- 張學鋒 編著, 2009,『中國墓葬史(上冊)』, 廣陵書社.
- 浙江省博物館 編, 2000,『浙江紀年瓷』, 文物出版社.
- 朱伯谦, 2000,『中国陶瓷全集4-三国两晋南北朝』, 上海人民美术出版社.
- 中國硅酸鹽學會 主編, 2006,『中國陶瓷史』第5版, 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輯, 2006,『鄂城六朝墓』, 科學出版社.
- 陳履生·張蔚星 編, 2000,『中國人物畫 隋唐卷』, 廣西美術出版社.
- 平江·許智范, 1980,「江西吉安縣南朝齊墓」,『文物』2, 文物出版社.
- 何繼英, 1996,「西方藝術對魏晉南北朝隋唐陶瓷器的影響」,『上海博物館』集刊第七期, 上海書畫出版社.
- 湖北省博物館, 1966,「湖北漢陽蔡甸一號墓清理」,『考古』4, 科學出版社.

- 일본어 -

- 東京國立博物館, 1994,『中國の陶磁3 三彩』, 平凡社.
- 曾布川寛, 岡田健, 2000,『世界美術大全集3-三國·南北朝』, 小學館.

- 영어 -

- Peter Stewart, 2024, *GANDHARAN ART AND THE CLASSICAL WORLD -A Short Introduction*, Archaeopress Publishing Ltd.

# A Study of a Jar with Chicken Head

Kim, Il-Kyu(Lecturer, Pusan National University)

A jar with chicken head is a form representing the Liu-Chao pottery that appeared in Eastern Wu(東吳), and was popular during the Liu-Chao(六朝) and Sui (隋) period. Contrary to the previous view that it appeared in the Western Jin(西晉)-Eastern Jin(東晉) replacement period, the time of its appearance was retroactive to the middle of the Eastern Wu period. The background of its appearance reflects the ancient Chinese concept of admiring chickens and due to the Cheongdam(清談) trend that was popular at the time, the era of pursuing aesthetic elegance in the culture of drinking alcohol and tea was reflected in the ceramic culture. A jar with chicken head is a new model that emerged by fusion of traditional elements and foreign Gandhara style elements. A jar with chicken head was used as a kettle contained alcohol or tea, but it became large after the middle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y period, and its use as a kettle deteriorated. In particular, it was enlarged and decorated with splendid relief patterns in the Northern Dynasty period, so it was used as a decoration rather than a daily container, and was buried in the tomb after the owner's death.

**Key words :** Jar with chicken head, Eastern Wu(東吳), Liu-Chao pottery, Tradition, Gandhara style, Daily container, A decoration.